

도시의 탈출을 꿈꾼다

전원주택을 소재로 한 책들에 관심 커

짜증나는 교통지옥, 맑게 갠 모습을 보기 어려운 뿌연 하늘, 따뜻한 웃음 한번 나누기 힘든 살벌한 이웃, 마음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동료나 직장상사는 어느새 적수가 되는 곳. 도대체 마음 붙일 곳 없는 도시다. 이 썩어빠진 도시인은 누구나 한번쯤 낙향을 꿈꾸게 된다.

도시를 떠나고 싶어하는 도시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출판물이 인기다. 전원주택을 소재로 하는 책들이 그것. 이 책들은 때로는 전원 속에 사는 삶에 대한 깊이있는 철학적 단상으로, 어떤 것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책으로, 혹은 저자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 놓은 에세이 등 다양한 형태로 출판되고 있다.

다양한 관심에 걸맞는 다채로운 형식의 이들 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전원주택,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다》(이광훈 지음, 살림). 95년 가을에 출간되어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이 책은 제목만으로 보자면 흔하디 흔한 재테크 책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 이상의 내용으로 독자를 끌어당긴다.

우선 저자는 전원주택을 '언덕 위의 하얀 집'으로 생각하는 도시인의 선입견을 깨뜨린다. 현실적인 조건에서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밀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제 전원주택을 마련할 때 부딪히게 되는 제도적인 장벽, 이를테면 토지거래 허가제나 농지매매 증명제 등의 규제를 합법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상세히 적고 있다. 말미에 붙은 전원주택 건축의 흐름과 공법,

시공전문업체에 대한 정보는 실제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정확한 정보와 기자출신 저자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장감을 더하고 있다. 현재는 개정된 토지관계법이 정리되는 대로 재출간 하려고 준비중이다. 이 책은 비슷한 주제의 출판 붐을 일으킨 산파역할로 더욱 주목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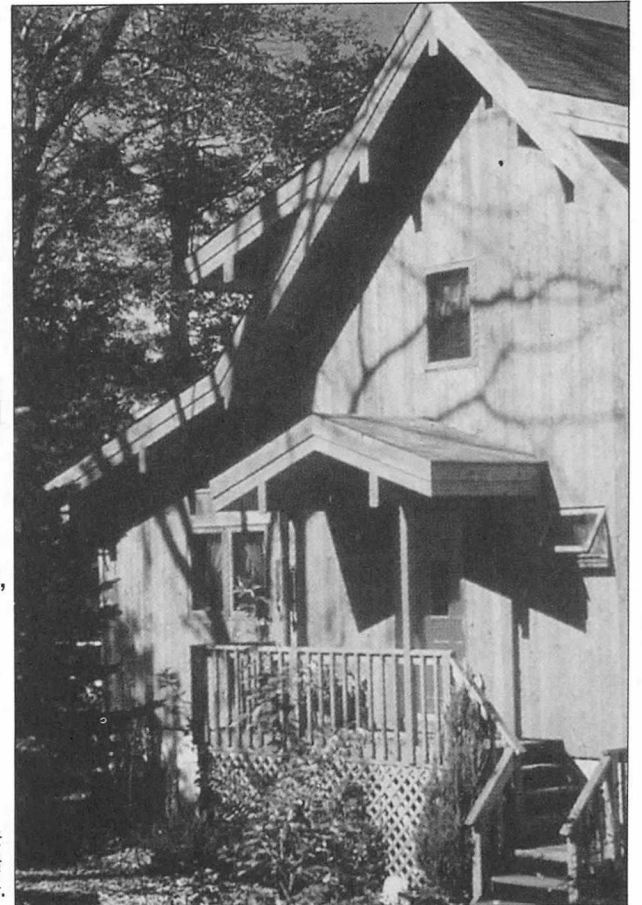
주택정보사에서 나온 《전원주택전집》은 화려한 원색화보만으로도 그 값어치를 하는 책이다. 책의 앞부분을 원색 화보로 꾸미고 있는데, 목조주택, 통나무집, 석조주택에 벽돌집까지 다양한 전원주택의 유형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도 소상하게 밝혔다. 그뿐 아니라 전원주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나무나 화초 기르기와 같은 세부적인 취미생활에 대한 안내까지 해놓고 있다. 주택정보사의 편집장 임광호씨의 말에 따르면 책에 실린 주택 유형을 묻는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고 한다. 이 책이 《전원주택...》과 다른 점은 많은 화보로 가독성을 높였다는 점인데, 아직까지 전원주택의 유형이 상품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위의 두 책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황토침대 그리고 전원주택》(김명태 지음, 예가)은 강화도 석모도에서 태어났으나 일찌감치 도시로 나와 의류업으로 성공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저자의 특이한 인생경력과 함께 고향에 있는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담

도시를 떠나고 싶어하는 도시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전원주택 관련서가 인기다.

이들 책은 전원 속에 사는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단상으로, 실생활에 활용가능한 실용서로, 저자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놓은 에세이로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다.

전원주택을 꿈꾸는 도시인들에게 다양한 실용서가 나와 있다.



았다. '경제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닦아 놓은 후에 시골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생활'이라는 도시인의 꿈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저자는 단순히 도시를 떠나 산다는데 그치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살 때 사람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숙면을 보장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황토침대를 개발하여 보급한 일도 그와 무관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은 호주나 뉴질랜드의 전원주택을 소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이다.

전원주택을 소재로 한 책이 점차 늘어나

는 것은 일상이 피로운 도시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러나 정말 도시생활에 지치고 찌든 샐러리맨에게는 독서로 잠깐 일상을 잊어버리게 하는 역할 이상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실용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지만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 전원주택 관련서를 펴낸 출판사들은 전원주택의 실용화를 위해 농가를 개조하는 대중적인 사례를 더 풍부하게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현주 기자

”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열두명이 모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색다른 눈과
감각으로 일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12인과 우수편집팀과

아이디어맨으로 구성된

포인트·라인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



TOTAL ILLUSTRATION CO.
포인트·라인
일러스트레이션 · 디자인전문회사

POINT-LINE

포인트·라인은 픽처북, 스토리북, 표지일러스트와
캘린더, 카드, 참고서, 교과서 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으며, 모든 광고와 표지, 본문 디자인 또한 색다른
시각으로 기획,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의 일러스트 기법으로는 종이 입체
일러스트나 수채화, 유화, 지점토, 모래
그림 등 기타 기법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아대상 출판과 아동출판기획을
자신있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꼭 만족하실 것입니다.